

退溪『論語』解釋의 經學的 特徵과 그 繼承樣相

이영호*

|| 차례 ||

1. 서론
2. 퇴계의 『논어』 해석과 그 경학적 특징
3. 퇴계학파의 『논어』 해석과 그 分化의 樣相
4. 결론

【국문초록】

『논어』는 유가의 비조인 공자의 언설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기에 동아시아 각국의 수많은 경학자들이 주석을 내곤 하였다. 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논어』 주석서는 朱子の 『論語集注』인데, 주자는 이 책에서 경전해석학의 중요 방법인 義理와 訓詁를 반영해내었다. 그런데 주자 이후 중국의 주자학파는, 양명학파의 사상 투쟁 과정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자연히 주자의 경전해석방법 중 의리에만 치중하고 훈고는 소홀히 하였으며, 이러한 학문적 태도는 그들의 『논어』 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조선의 退溪는 『論語釋義』를 저술하면서 주자의 『논어』 주석을 준거로 삼았다. 때문에 그는 『논어』를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주자학적 의리에 충실하였지만, 때로는 經典의 本旨를 찾고자 노력했으며, 또한 경문의 자구를 조선어로 풀이하는 훈고에도 매진하였다.

퇴계 이후 영남 퇴계학파와 근기 퇴계학파는 주자와 퇴계의 영향 아래 각기 다른 경학적 특징들을 내포하는 『논어』 주석서들을 집필하였다. 영남 퇴계학파의 李德弘은 『論語質疑』를 통해 스승의 『논어』설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논어』를 해석했으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며, 柳長源은 『論語纂註增補』에서 중국 주자학파의 『논어』설을 집성하였고, 柳健休는 『東儒論語集解評』에서 조선 주자학파의 『논어』설을 집대성하였는데, 그 공통적 특징으로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들 수 있다.

한편 근기 퇴계학파의 종장인 李瀼은 『論語疾書』에서, 주자의 의리정신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주자학적 의리와는 다른 새로운 의리-예컨대 현실과 이익의 중시-를 그의 『논어』 해석에 투영시켰다. 또한 동아시아 『논어』 주석사에서 특기할 만한 『논어』주석서인 『論語古今註』를 남긴 丁若鏞도, 훈고만을 고집하는 한학을 배척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주자학을 존송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이기심성론이 중심에 놓여있는 주자의 『논어집주』와는 달리, 『논어고금주』에서 경세치용을 지향하는 해석체계를 수립하였다.

주자가 『논어집주』에서 이룩한 훈고와 의리의 종합이라는 경학적 성과는 중국주자학파에서는 계승이 되지 않고, 조선의 퇴계에 와서야 계승이 되었다. 이후 퇴계학파는 의리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주자학파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영남 퇴계학파의 경우는 주자학적 의리를 정치하게 파고들었고, 근기 퇴계학파의 경우는 조선후기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리를 그들의 『논어』 주석에 투영시켜 놓았다는 점을 차이점 내지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주제어 『논어』, 주자, 『논어집주』, 퇴계 이황, 주자학파, 퇴계학파

1. 서론

조선의 유학(주자학)은 晦峯 河謙鎭(1879-1946)이 지적했듯이, 학문의 집대성적 위치나 수수한 연원의 성대함에 비추어 보면 퇴계 만한 학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회봉은 退溪學案을 가리켜 우리나라 상하 일천년 유학사의 大一統學案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¹⁾ 퇴계의 학문이 이

1) 河謙鎭, 『東儒學案』上編三, 「陶山學案」, 中和堂 影印本, 83쪽. “自有吾東儒學以來, 經術德行之備, 無如退陶. 自有吾東儒學以來, 授受淵源之盛, 無如退陶. —乃吾東上一千年儒學大一統之學案也.”

전부터 부분적으로 시도해온 성리학의 이론 탐색을 집대성하였으며, 이후의 허다한 성리학적 이론논쟁의 정점에 서 있기에, 퇴계학안이 우리나라 유학의 대일통학안이란 지적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²⁾ 또한 16세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삼국에 걸쳐 진행된 퇴계에 대한 평가를 일별해 보더라도 이를 과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한국에서 이루어진 퇴계에 대한 평가는 그 당대와 후대에 걸쳐 당파와 학맥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존송을 받았음이 곳곳에서 확인되며,³⁾ 중국에서는 주자학의 적통이 퇴계에로 넘어갔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⁴⁾ 그리고 일본에서도 퇴계의 학문과 인격을 가리켜 주자 이후 명청대 어떤 주자학자도 퇴계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평하였다.⁵⁾ 이러한 평가에 걸맞게 과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퇴계에 관한 저술들과 논문의 양은 무수히 많아서 가히 汗牛充棟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퇴계에 관한 수많은 논문과 저술들은 주로 그의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퇴계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의 첫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오늘날 경학이라는 학문분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그 연구자의 절대적인 수가 매우 적은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나

2) 황위주, 「서울 京畿地域의 退溪門人과 그 性格」,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3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3, 1~2쪽.

3) 이에 관해서는 이윤희, 김종석이 정리한, 「한국문집총간 퇴계선생관련자료」(『퇴계학보』112, 113)를 참조할 것.

4) 이같은 견해는 북경대 철학과 교수인 陳來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陳來 著·안재호 譯, 『宋明性理學』(예문서원, 1997)을 참조할 것).

5) 막부말기 메이지 시대의 일본학자인 쿠스모도 세키스이(楠木碩水)는 그의 문집인 『碩水先生余稿』에서, “陸隴其(1630-1693, 청대 주자학자)는 張履祥(1611-1674, 청대 주자학자)에 미치지 못하고, 장리상은 퇴계에 미치지 못하며, 薛瑄(1389-1464, 명대 주자학자)이나 胡居仁(1434-1484, 명대 주자학자) 역시 퇴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阿部吉雄 著, 김석근 譯, 『퇴계와 일본유학』(원제:李退溪 其의 行動と 思想), 전통과 현대, 2001, 178쪽에서 재인용).

마 소수의 경학 연구자들조차도 星湖와 茶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후기 실학과 경학에 연구역량을 집중시킨 것도 그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파의 경학세계는 주자의 경학세계를 어느 면에서 수용하기도 하지만, 그 나름의 독자적인 논리가 강하고 그 시대적(사상사적) 의미가 분명하여 연구자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유학의 정점에 서있는 이가 퇴계이고 한국유학사의 저류가 한국경학사임을 감안한다면, 퇴계의 경학과 퇴계학파의 경학세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유학사의 온전한 기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목되어야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퇴계의 『논어』 해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퇴계 경학의 특징을 고찰하고, 또 그 계승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퇴계 『논어』 해석의 경학적 특징과 그 경학사적 계승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주자와 주자학파의 『논어』 해석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사상사의 관점에서 보면, 퇴계학파는 주자학파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퇴계학파의 사상과 경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항상 주자학파의 그것과의 연관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⁶⁾ 이같은 연관선상에서 양자의 영향관계와 발전적 계승양상을 따져보아야만, 퇴계(학파)의 『논어』 해석의 특징과 성과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주자의 『논어』 해석과 중국 주자학파의 계승양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퇴계 『논어』 해석의

6) 주자학은 자연과 정치, 도덕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사상체계로 그것의 출현은 동아시아 사상사의 큰 사건이었다. 때문에 주자 이후 동아시아 사상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자학을 의식하고 있다. 비록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수용과 전개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한중일의 주자학파뿐 아니라 중국의 고증학파, 조선의 실학파, 심지어 주자학을 가장 심각하게 비판했던 일본의 고학파조차도 주자학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항상 주자학파의 거리를 의식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야만 그것의 특징이 사상사적 맥락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이같은 견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미조꾸지 유조 著·최진석 譯, 『개념과 시대로 읽는 중국사상강의』, 소나무, 2004를 참조할 것).

경학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이것이 주자(학파)의 『논어』 해석사에서의 영향과 발전의 양상을 따져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계의 『논어』 해석이 영남 지방의 퇴계학과와 근기 지역의 퇴계학과에 의하여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퇴계의 『논어』 해석과 그 경학적 특징

1) 주자 『논어』 해석의 경학적 특징

『四庫全書總目提要』 「經部總序」에서는 漢에서 淸에 이르기까지의 경학의 양대 축을 訓詁를 중심으로 하는 漢學과 義理를 중심으로 하는 宋學으로 나누고 있다.⁷⁾ 淸代의 漢學派⁸⁾는 이 기준에 의거하여 주자의 경학이 송학적 의리는 풍부한 반면 한학적 훈고⁹⁾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곤 하는데, 毛奇齡(1623-1716)같은 학자는 『論語稽求篇』에서 주자의 경전

7) 『四庫全書總目』 「經部總敘」. “自漢京以後垂二千年—學凡六變—要其歸宿, 則不過漢學宋學兩家互爲勝負.”

8) 漢學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세기 중엽 吳派 考證學을 창시한 惠棟인데, 그는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는 ‘宋學’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漢의 訓詁學과 淸의 考證學을 총칭하여 漢學이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紀昀의 『四庫全書總目』, 阮元的 『皇淸經解』, 王先謙의 『續皇淸經解』에 등에서 한학과 송학을 구분하였다. 한편 한학과 송학파는 청 중엽에 더욱 뚜렷하게 나뉘어져서, 서로의 학문경향에 대하여 비판을 하곤 하였다. 그 한 예로 청대의 대표적인 한학자인 江藩은 한학의 편에 서서 『漢學師承記』와 『宋學淵源記』를 저술하였는데, 그 주된 논지는 한학의 훈고에 대한 표장과 송학의 근거 없는 의리에 대한 비판에 있다. 그리고 청대 송학파의 대표격인 方東樹는 송학의 편에 서서 『漢學商兌』를 저술하였는데, 송학은 의리와 훈고를 겸한 학문이며 한학파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극력강조하고 있다(조병한, 「淸代의 思想」, 『講座中國史』IV, 지식산업사, 1989, 266~267쪽; 김문식, 「19세기 전반 京畿學人의 經學思想과 經世論」,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22쪽 참조).

9) 여기서 한학적 훈고란 고문자의 훈고와 성운, 교감 등을 가리키며, 송학적 의리는 본체론과 인성론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과 사상적인 면을 의미한다(周予同, 「漢學與宋學」, 『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96, 322~327쪽 참조).

주석은 날조에다가 같은 문호에 들어있는 도학파의 경설만을 집성해 놓아서 한 치의 가치도 없다고까지 혹평하기도 하였다¹⁰⁾. 그러면 주자 경학의 진정한 면모는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논어집주』의 주석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는 가운데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논어집주』의 주석방식이 후대 주자학파에 의해 어떻게 계승되고 있으며, 중국에는 퇴계와 퇴계학파가 주자 경학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계승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자의 『논어집주』는 단기간에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진 저술이 아니다. 주자는 『논어집주』를 완성하기 위하여, 『論語集解』·『論語要義』·『論語訓蒙口義』·『論語精義』·『論語或問』 등 무려 여섯 종류의 주석서를 20여년에 걸쳐 저술하였다. 이 『논어』 주석서들은 각기 주자 사상의 형성과정에 맞추어 집필된 것으로 주자의 경전주석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¹¹⁾, 여기에서 이룩된 성과는 『논어집주』의 주석방식에 잘 반영되어 있다.

『논어집주』의 주석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音注를 다는 방식이고, 둘째는 訓注를 다는 방식이다. 근래 한 연구자의 견해에 의하면, 주자는 다음과 같이 14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논어집주』에 음주를 달아 놓고 있다.¹²⁾

- ①‘某, 某某反’(즉 反切), ②‘某, 某聲’(즉 四聲), ③‘某, 與某同’, ④‘某, 如

10) 毛奇齡, 『論語稽求篇』卷一(『文淵閣四庫全書』210, 經部204 四書類, 臺灣商務印書館), p135. “宋朱氏註, 則又僅見何氏一書, 別無他據, 旁彙以同時學人之言. —先仲氏嘗曰: ‘此宋儒之書, 非夫子之書.’”

11) 줄고, 『『論語集注』의 成書過程을 통해 본 朱子 經學의 特徵』, 『한문학보』9집, 우 리한문학회, 2003 참조.

12) 이재석, 『『四書章句集注』音注의 訓詁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박사는 문, 1995.

字', ⑤'某, 某作某', ⑥'某, 讀爲某', ⑦'某, 讀作某', ⑧'某, 當作某', ⑨'某, 亦作某', ⑩'某, 一作某', ⑪'某, 或作某', ⑫'某, 本作某', ⑬'某, 與某通', ⑭'某, 古某字'

위와 같이 세분화 된 『논어집주』의 音注(특히 反切 音注)는 唐代 陸德明의 『經典釋文』의 음주를 80%이상 반영하고 있다. 주자가 『논어집주』에서 이처럼 當代의 語音으로 음주를 달지 않고, 唐代 이전의 어음으로 음주를 단 것은, 音韻 자체 보다 字義의 변별을 위해서 음주를 필요로 한 때문이다.¹³⁾ 그러므로 『논어집주』의 音注는 직접적인 字義 설명과 함께 자의를 변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자 이전의 어떤 경학자의 『논어』 주석서에도 이처럼 음주에 주목하지 않았기에, 이는 주자 경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학자 大槻信良은 『四書集注』의 訓注 방식을 4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다.¹⁴⁾ 그러나 필자는 『논어집주』의 훈주 방식을 좀더 세분화 하여 8가지로 나누어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¹⁵⁾

- ① 古-宋代 以前の 古注¹⁶⁾, ② 近-송대 도학자들의 주¹⁷⁾, ③ 新-朱子の 新註¹⁸⁾, ④ 古+古¹⁹⁾, ⑤ 古+近²⁰⁾, ⑥ 古+新²¹⁾, ⑦ 近+近²²⁾, ⑧ 近+新²³⁾

- 13) 이 때문에 이재석은, 『사서집주』의 음주를 연구하면서 '음운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훈고학적인 접근을 통해 음주를 분석하였다'라고 하였다.
- 14) 大槻信良은 『朱子四書集注註典據考』(臺灣 學生書局, 民國 65년)에서, 사서집주의 훈주 방식을 (1)古, (2)近, (3)古+近, (4)古+新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 15)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줄고, 『『論語集註』의 註釋方式과 그 經學史的 繼承樣相』(『東洋學』 제3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4)을 참조할 것.
- 16) 주자는 한자(어)를 설명할 때는 종종 고주를 인용하곤 하는데, 그 인용의 범위는 유가의 십삼경(의 고주)뿐 아니라, 『說文解字』, 『廣雅』, 『經典釋文』 같은 文字書에서 부터, 『漢書』, 『晉書』, 『隋書』 같은 역사서, 『文選』 같은 문학서, 『老子』 같은 도가류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 17) 주자는 『논어집주』에서 북송대 11명의 도학자들의 경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위와 같은 『논어집주』의 주석방식에서, 音注와 송대 이전의 古注를 인용한 ①과 ④, ⑤, ⑥은 현대 이래 훈고학의 주요 성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리고 ③을 중심으로 ②, ⑦, ⑧은 송대 도학파의 『논어』설을 기반으로 한 주자의 理學思想, 즉 주자학적 의리가 투영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로 주자학의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에 관한 내용이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주자가 의리와 훈고라는 경학의 주석방식을 『논어집주』내에서 적절하게 반영해 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상 주자 이전이나 주자와 동시대의 어느 경학가의 『논어』주석도 이처럼 의리와 훈고에 철저했던 경우는 없다.²⁵⁾ 그렇기에 현대의 연구자들은 주자 경학의 의리적 특성뿐 아니라, 훈고적 특징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도 한다.²⁶⁾

-
- 18) 『논어집주』내의 주자의 독창적 해석이다. 주자의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그의 理學的 체계를 잘 반영해 내고 있는데, 주로 본체론과 심성론에 관한 부분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 19) 古+古는 각기 다른 고전에서 고주를 원용하여 이를 합해서 한 단어를 설명해 내는 것이다.
- 20) 古+近은 唐代 이전의 古注와 송대 유학자들의 주석을 합해서 주석을 다는 방식이다.
- 21) 古+新은 고주에 근거를 두되 자신의 이학적 체계에 의해 변용하여 주석을 다는 방식이다.
- 22) 近+近은 송대 도학자들의 경설을 동시에 인용하여 주석을 다는 방식이다.
- 23) 近+新은 송대 도학자들의 주석에 의거하되, 자신의 이학적 관점을 투영시켜 주석을 다는 방식이다.
- 24) 주자 경학의 이같은 훈고학적 특징에 대하여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與猶堂全書』第一集 第八卷 文集, 「十三經策」, “朱子之爲詩書集傳及論孟集注, 其於義理之條路, 道學之脈絡, 固不無以意超據, 與註疏出入者. 而其字義詰訓章句箋釋, 未嘗不純用注疏.”
- 25) 주자 경학의 의리적 측면이 경학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대부분의 경학 연구논문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훈고적 측면에 대한 의미부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러나 주자 이전의 단행본 형태의 『논어』주석서인, 鄭玄의 『論語鄭氏注』, 何晏의 『論語集解』, 皇侃의 『論語義疏』, 韓愈의 『論語筆解』, 邢昺의 『論語注疏』, 陳祥道的 『論語全解』 등을 살펴보면, 『논어집주』의 훈고가 그 어느 주석서보다도 풍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명청대 주자학파는 육양학파와 매우 격렬하게 사상논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어집주』에 투영되어 있는 주자의 이학사상, 즉 주자학적 의리를 천발하는 데 학문적 역량을 쏟아 붓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명청대 주자학파의 대표적인 『논어』주석서에는 주자가 고심해서 이룩해 놓은 훈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이학적 의리에 대하여 천착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었다.²⁷⁾ 그 결과 청대에 이르기까지 주자 경학의 훈고학적 측면은 주자학파에서는 단절되었고, 흔히 반주자학파라고 일컬어지는 청대 고증학과 경학자들 중의 일부에 의해 계승되었다.²⁸⁾

그러면 이제 독실한 주자학도로 알려진 퇴계 『논어』 해석의 경학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주자학파의 『논어』 해석사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2) 퇴계 『논어』 해석의 경학적 특징

퇴계는 12세 때 숙부인 松齋 李堦(?-?)로부터 논어를 배웠는데²⁹⁾, 당시에 『논어』의 경문은 물론 주자의 『집주』까지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다고 한다.³⁰⁾ 아마 유년기의 이러한 독서 경험은 퇴계의 사유에 상당

26) 주자 경학의 훈고적 특성에 대한 의미부여는, 林慶彰, 『明代考據學研究』, 學生書局, 民國75년, 9~10쪽; 錢穆, 『朱子新學案』卷五, 「朱子之校勘學」, 「朱子之辨僞學」, 「朱子之考據學」 등의 항목을 참조할 것.

27) 『논어집주』에 대한 원명청대 주자학자의 주석을 볼 수 있는 湯傳樂의 『四書明儒大全精義』, 張居正의 『四書集注闡微直解』, 陸隴其의 『松陽講義』, 王掞의 『朱注發明』 등을 살펴보면 이 점은 매우 분명하다.

28) 이는 方東樹(1722-1851)가 『漢學商兌』에서 청대 고증학과 『논어』 주석의 대표격인 閻若據(1636-1704)의 『四書釋地』와 江永(1681-1762)의 『鄉黨圖考』를 거론하면서, 『논어집주』의 고증학적 측면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 점에서 바로 ‘朱子の功臣’이라고 평가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 『增補退溪全書』4, 「退溪先生言行通錄」卷之六,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113쪽. “先生十二歲, 受論語叔父松齋公堦.”

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논어』의 내용에는 오묘한 도와 깊은 뜻의 실마리가 담겨져 있는 데다, 그 정수가 단일한 개념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여러 경문에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논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경전이라고 생각했다.³¹⁾ 때문에 퇴계는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精緻하게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결실로 이루어진 『논어』주석서가 바로 『論語釋義』(『經書釋義』所收)³²⁾이다.

이에 퇴계 『논어』 해석의 경학적 특징을 『논어석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규명해 보았는데, 먼저 그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형식적 특징

□ 경문을 풀이한 경우

- ① 국문 풀이→『論語釋義』「學而」. “爲仁之本. 인호을 본인더.”
- ② 한문 풀이→『論語釋義』「學而」. “知和而和. 此和字, 指禮之和處, 乃樂之所由生. 恐未可便做樂看也.”
- ③ 국한문혼용 풀이→『論語釋義』「八佾」. “不如諸夏. 업슴과는 곧디 아니호니라 當云 諸夏애 업스니 곧디 아니호니라 ○答汝膺問云, 諸夏無

30) 『增補退溪全書』4, 「退溪先生言行通錄」卷之二, 23쪽. “先生嘗曰: ‘嘗背誦論語兼集註, 自初章至終篇, 不差一字.’”

31) 『退溪先生文集』卷之三十五, 「答李宏仲」. “論語大旨, 或以爲操存涵養, 北溪, 陽村, 則皆以仁爲言. 雖皆大槩近似, 然此書乃出於一時門人雜記, 聖門師弟子問答言之類, 裒輯爲之, 其妙道精義, 頭緒多端.”

32) 『경서석의』는 퇴계가 1553년에 53세로 대사성에 취임한 뒤 1555년에 출성하기까지 집필되었는데, 퇴계가 제가의 훈석을 모아 증정하거나 또는 문인들과 일찍이 문변한 바를 연구한 것으로 퇴계 본인이 직접 정서한 것이다. 이 책의 手稿는 임진왜란 때 분실되었으나, 1609년에 경상감사 崔瓘(?-?)과 퇴계의 문인인 勉進齋 琴應堦(1540-1616)이 주재하여 문인들의 전사본을 저본으로 목판인쇄한 것이 현전한다(심경호, 「退溪 經書釋義의 音注에 관하여」, 『震檀學報』70, 진단학회, 1990을 참조).

君長，反不及於夷狄之有君長也。不如猶不及也。”

㉓ 주자주와 소주를 풀이한 경우

- ① 주자주→『論語釋義』「爲政」편. “攻 專治. 專心一力而治之也.”
- ② 소주→『論語釋義』「顔淵」편. “直窮到底. —小註鞅鞅肯綮—筋肉會處曰肯”

퇴계가 『논어석의』에서 경문을 풀이하는 형식은 ㉓에서 보듯이 3종류인데, 국문으로 풀이하는 경우(諺解), 漢文으로 풀이하는 경우, 국문과 한문을 혼용해서 풀이하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諺解의 전단계라는 『論語釋義』의 특성³³⁾상, 국문으로 풀이한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그리고 난해한 주자주와 소주의 풀이는, 드물게 국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³⁴⁾ 대체로는 ㉓에서 보듯이 주로 한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이러한 풀이들이 경문전체에 걸쳐 행해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행해졌으며, 난해처·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고, 직역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내용적 특징

㉓ 주자주에 의거한 정밀한 언해

퇴계는 평생 주자에 대한 존신을 잃지 않았던 학자인데, 그의 이러한 자

33) 이충구, 「經書諺解 研究」, 성대 박사논문, 1990, 29~30쪽. “석의는 구결 없이 어구를 뽑아 국어로 설명하고, 여러 선비의 견해에 저자의 의견도 첨가한 것으로 ‘한문구의 국역’ 정도로 정의된다. 그리고 석의는 전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곳만을 뽑아 성음에 관계없이 의미추구에 주력했고, 보충설명을 한문으로 했다. 따라서 석의는 구결과 언해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34) 퇴계는 주자주와 소주를 풀이할 때, “滲漏. 삼루 스ㅣ다”(『論語釋義』「憲問」)라는 예에서 보듯이 간혹 한글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세는 경전해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퇴계는 『논어석의』에서, 주자주를 정밀하게 읽고 그 내용을 준칙으로 삼아 『논어』경문을 언해하고 있다. 그 한 예로 『論語』 「爲政」 6장에서 孟武伯이 孝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父母唯其疾之憂’라고 대답한 구절에 대한 퇴계의 언해는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자는 『논어집주』에서 ‘唯其疾之憂’를 ①‘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의 질병을 근심한다’라고 풀고, 또한 ②‘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자식이 불의에 빠지는 것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식의 질병만을 근심하게 하여야된다’라고 풀이하기도 하였다.³⁵⁾ 이 경문에 대하여 퇴계는 두 종류의 언해를 남겼는데, 첫 번째는 ‘疾을 憂히시느니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疾만 憂히시게 홀디니라’라고 하였다.³⁶⁾ 이 두 종류의 언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첫 번째는 주자의 ①의 해석을 언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자의 ②의 해석을 언해했음을 알 수 있다. 주자의 주를 정밀하게 읽고 언해하는 퇴계의 이같은 태도는 『논어』의 다른 구절을 언해할 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³⁷⁾ 이처럼 퇴계의 『논어』언해의 기준은 주자주이지만, 한편으로 퇴계는 경문 자체를 정밀하게 읽고 주자주에서 드러내지 못한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언해에 채택하곤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주자주를 언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경문 독해에 있어서 경전의 본지를 추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35) 『論語集註』 「爲政」 第二 6章 〈孟武伯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에 대한 주자주. “言父母愛子之心, 無所不至, 惟恐其有疾病, 常以爲憂也. 人子體此, 而以父母之心爲心, 則凡所以守其身者, 自不容於不謹矣, 豈不可以爲孝乎? 舊說, 人子能使父母不以其陷於不義爲憂, 而獨以其疾爲憂, 乃可謂孝. 亦通.”

36) 『論語釋義』 「爲政」. “唯其疾之憂. 疾을 憂히시느니라. ○疾만 憂히시게 홀디니라.

37) 『論語集註』 「八佾」 1장의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라는 경문에 대하여 주자는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 孔子言①其此事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②或曰: ‘忍, 容忍也’ 蓋深疾之之辭.”라고 두 종류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퇴계는, ①에 대해서는 ‘이를 可히 忍하곤’이라고 언해하였고, ②에 대해서는 ‘이를 可히 忍홀단댄’이라고 언해하였다.

㉓ 경문의 정독을 통한 다양한 언해

『논어』 「위정」편 2장에서 공자는 “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思無邪’에 대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언해를 하고 있다.

『論語釋義』 「爲政」 2장. “思無邪. ①思 | 邪 | 업스미니라. ○②思 | 邪 | 업게 홀디니라. 此有工夫說. 今按兩說皆當存之. 但下說當云업게 호미니라.”

劉若愚 교수는 『중국문학이론』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문학비평의 양식을 6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儒家에서 도와 문학, 그리고 개인의 성정과 문학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범주로 형이상학적 이론, 표현론, 효용론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 형이상학적 이론은 문학은 道의 顯示로 보며, 표현론은 문학을 작가의 정감의 표현이고, 효용론은 문학을 독자의 性情을 도야하는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⁸⁾

그런데 ‘思無邪’에 대하여 주자는, “『詩經』의 모든 시에서 선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 분발하게 할 수 있고, 악을 말한 것은 사람의 방탕한 마음을 징계할 수 있으니, 그 효용은 사람들이 바른 성정을 얻게 하는데 귀착될 뿐이다”³⁹⁾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시경시를 독자의 성정을 도야하는 수단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효용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⁴⁰⁾ 퇴계는 ‘사무사’를 ②에서 보듯이 ‘思 | 邪 | 업게 홀디니라’라고 언해하고, 이 구절은 공부에 관한 설이라고 한문주를 붙였다. 이 해석은 독시

38) 劉若愚 著·李章佑 譯, 『中國의 文學理論』, 동화출판공사, 1984 참조.

39) 『論語集註』 「爲政」 2장.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라는 경문에 대한 주자주. “凡詩之言, 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

40) 『논어』의 古註에서도 이 구절을 효용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邢昺, 『論語注疏』 「爲政」第二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라는 경문에 대한 包咸의 주. “歸于正.”

자들이 공부를 해서 선을 흥기시키고 악은 징계하여 내면의 사악함이 없게 한다는 의미로, 바로 주자의 효용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언해한 것이다.

한편 '사무사'는 자못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느니, 그것은 바로 표현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시경시의 작자의 내면에 사악함이 없다'로 해석되어서, 시경시를 독시자의 정감의 순화가 아닌 작시자의 정감의 표출로 보게 되는 것이다. 퇴계가 ①에서 '思 | 邪 | 업스미니라'라고 언해한 것은, 바로 이러한 표현론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을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경학자로는, 명나라 焦竑(1549-1620)과 청나라 李顥(1627-1705) 등을 들 수가 있는데,⁴¹⁾ 퇴계가 이들의 경설을 보고서 이렇게 언해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퇴계가 만일 이들의 경설을 보았다면, 그 근거를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퇴계가 '思無邪'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표현론과 효용론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위와 같이 언해했다는 것은, 경문을 정독하고 그 다양한 해석의 경로를 나름대로 찾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주자주를 정밀하게 읽고 이에 바탕하여 『논어』의 특정구절을 언해하기도 하였지만, 이처럼 경문 자체를 정밀하게 읽고 자신의 논리로 『논어』의 구절을 언해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자세는 『논어』 경문에 즉하여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 구절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나올 여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독법에 따라 해석이 다양한 경우, 퇴계는 주자주를 중심근거로 삼으면서도, '當云', '或云', '恐無妨', '諸說亦皆無妨'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타의 해석을 『論語釋義』에서 폐기하지 않고 병존시켜 놓고 있다. 퇴계의 이러한 석경자세는 경에 대한 活看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그 기저에는 경문의 본지에 대한 탐구의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퇴계는 경문을 볼 때, 주자주를 준칙으로 삼으면서도, 항상 문맥과 문리를 고려한 적의한

41) 程樹德 撰, 『論語集釋』一, 中華書局, 1990, 67쪽 참조.

해석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㉓ 문맥과 문리에 의거한 適宜한 해석

경문의 본지에 대한 탐구의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퇴계의 석경자세는, 필연적으로 문맥과 문리에 의거하여 경문을 적의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다음의 예는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亡之’는 ‘亡히리로다’라고 읽는데, 지금 고찰해보면 ‘亡히리러니’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자는 ‘亡홀거시어늘’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문장에서 ‘亡’란 글자는 ‘有無’의 ‘亡(무)’이지, ‘死亡’의 ‘亡(망)’자가 아니다. 『논어집주』에서 ‘이 사람이 응당 이러한 병이 없을 것이다(此人不應有此疾)’이라고 해석한 것은 ‘亡之’ 두 글자를 풀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뜻은 이 사람이 응당 이러한 병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있으니 이는 천명이라는 것이다. 성인께서 어찌 병문안을 갔다가 곧바로 병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겠는가? 그랬다면 이는 성인의 愼厚하고 침착한 기상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죽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면 마땅히 ‘亡矣’라고 했을 것이지, ‘亡之’라고 ‘之’자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⁴²⁾

『論語集註』「雍也」8장을 보면, 伯牛라는 제자가 병이 들자 공자가 문안가서 창밖에서 그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공자가 ‘亡之, 命矣夫!’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구절에 대하여 주자는 ‘永訣辭이며, 이 사람이 응당 이러한 병이 없어야 될 터인데 지금 이 병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천명이다’라고 풀이하였다.⁴³⁾ 주자의 이 해석은 조금 모호한 측

42) 『論語釋義』「雍也」8장. “亡之. 亡히리로다. 今按當亡히리러니, 或云亡홀거시어늘. 蓋亡卽有無之亡, 非死亡之亡. 註此人不應有此疾, 正解亡之兩字, 言此人當無此疾而今有之, 是乃命也. 聖人豈問人疾, 而直言其當死乎? 大非聖人愼厚沈密之氣象. 且若言死亡, 當曰亡矣, 不當下之字.”

43) 『論語集註』「雍也」8장. 〈伯牛有疾, 子問之, 自牖執其手曰: “亡之, 命矣夫! 斯人也而有斯疾也! 斯人也而有斯疾也!”〉라는 경문에 대한 주자주. “蓋與之永訣也. 命, 謂天命. 言此人不應有此疾, 而今乃有之, 是乃天之所命也.”

면이 있는데, ‘영결사’와 ‘응당 이러한 병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영결사의 입장에서 보면 ‘亡之, 命矣夫!’는 ‘죽겠구나, 천명이로다!’ 정도로 해석될 것이며, ‘응당 이러한 병이 없을 것이다’라는 주석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면 ‘亡之, 命矣夫!’는 ‘이런 병이 없어야 될 터인데, (있다니)천명이구나!’라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亡之’의 ‘亡’의 음은 ‘망’이고, 후자의 경우 ‘亡之’의 ‘亡’의 음은 ‘무’로 나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아마도 당시에는 ‘亡之’의 ‘亡’을 ‘망’으로 읽고, 이를 ‘죽겠구나’로 해석하는 풍조가 일반적이었던 듯 하다.⁴⁴⁾ 그런데 퇴계는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亡之’를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당시에 유행했던 해석의 양상에 따른 언해를 제시하고나서, 문맥과 문리에 의거하여 새롭게 해석해 내고 있다.

퇴계는 ‘亡之’의 ‘亡’을 ‘망’이라고 읽어서 이를 ‘죽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亡之’의 ‘亡’은 ‘무’로 읽어야 되며 이는 ‘없어야 될 터인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우선 성인의 신중하고 침착한 기상에 비추어본다면 병문안 가서 ‘너 조금 있다가 죽겠구나’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亡之’를 ‘죽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어불성설이며, 한편으로 문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 해석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문리상 만약 ‘亡之’를 ‘죽겠구나!’라고 해석하려면, 이 구절은 ‘亡之’로 써서는 안되고 ‘亡矣’로 써야 된다는 것이다.⁴⁵⁾ 현대 중국어학자들의 견해도 퇴계와 유사하다. 예컨대 黃六平⁴⁶⁾은 ‘亡’을 ‘無’로 읽을 경우 이는 존재동사가 되고 뒤따라오는 ‘之’

44) 그 실례로 栗谷도 그의 『四書釋義·論語』에서 이 구절을 언해하기를, ‘亡 홀리로다’라고 했는데, 이는 곧 ‘亡之’의 ‘亡’을 ‘망’으로 읽고, ‘곧 죽겠구나’로 해석한 것이다.

45) 이 구절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해설은, 김언중, 「退溪의 『論語釋義』小考」, 『退溪學報』107,108합집, 145~108쪽을 참조할 것.

46) 黃六平 著·홍순요 譯, 『漢文文法綱要』, 미리내, 1994, 143-144쪽, 186쪽 참조.

는 빈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니,⁴⁷⁾ 그렇다면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병이 없다’로 해석이 되게 된다. 또한 王力은 한문에서 ‘矣’는 대체로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새로운 상황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종결사라고 하였다.⁴⁸⁾ 왕력의 견해대로라면 공자가 백우를 만나 그에게 영결하려고 이 말을 했다면, ‘亡之’보다는 ‘亡矣’로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퇴계의 경문에 대한 다양한 독법과 이에 근거한 언해 및 문구 해석은 모두 문장에 대하여 풀이한 것이다. 그런데 퇴계는 『논어석의』에서 문장뿐 아니라, 한자(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풀이하고 있다.

㉔ 한자(어)의 뜻과 음에 대한 정밀한 풀이

퇴계의 한자(어)에 대한 풀이도 문장에 대한 풀이 못지않게 정밀하고 다양한데, 그 양상을 아래와 같이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경문 한자(어)의 뜻과 음

『論語釋義』「泰伯」.“無禮則蕙. 絞訓縛也. 縛則有結束緊急之義.”

『論語釋義』「鄉黨」.“踧踖. 上子六切 下音積. 然則當云축적. 然今俗音축척, 恐難改也.”

② 주자주 한자(어)의 뜻과 음

『論語釋義』「爲政」.“攻 專治. 專心一力而治之也.”

『論語釋義』「憲問」.“滲漏. 滲音습”

47) 이 어조사 ‘之’를 대명사 또는 목적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최근 한국학자에 의해 제기되어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亡之’는 ‘죽겠구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정요일, 「語助辭 ‘之’자를 目的語로서의 代名詞로 볼 수 없는 理由」, 『漢文教育研究』1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참조).

48) 王力 主編·영남중어중문학회 編, 『中國語文學通論』(원제:古漢語通論), 중문출판사, 1991, 183쪽 참조.

③ 소주 한자(어)의 뜻과 음

『論語釋義』「顏淵」.“直窮到底，一底裏猶云源本也。小註鞣鞣肯綮 上音膠 下音葛—肯綮 肯苦等切 綮音營，筋肉會處曰肯”

퇴계는 위에서 보다시피, 경문, 주자주, 소주에 걸쳐 그 음과 뜻을 한글 또는 한자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經書釋義』는 본질적으로 해석의 문제(訓註)를 주로 다루고 音韻의 문제(音注)는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논어석의』에서도 한자(어)의 음주보다 훈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논어석의』의 음주는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퇴계 경학의 특징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 중의 하나이다. 이에 위의 ①, ②, ③에서 열거한 음주의 방식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⁴⁹⁾ 첫째는 경문, 주자주, 소주의 주음을 환기시키고, 그 주음에 상당할 한자음을 반절음, 직음, 한글로 표시한 것이고, 둘째는 주자주나 소주의 주음과는 별도로 한자음을 추정한 것이며, 셋째는 난독자의 한자음을 한글, 직음 혹은 반절음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주 방식에서 우리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퇴계가 음주를 달 때 俗音을 거론하고 한글을 자주 이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퇴계의 음주 방식이 當代音의 구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자가 唐代 이전의 어음으로 음주를 단 것과는 선명하게 비교가 된다. 퇴계의 주자에 대한 존신을 생각할 때, 퇴계가 주자와 이렇듯이 음주의 방식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석의가 언해의 전단계였기에 퇴계가 당대음인 한글로 음주를 다는 데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간 퇴계의 한자어에 대한 이같은 훈주와 음주는 경문과 주자주의 본뜻을 탐구하기 위한 전단계로 훈고의 학문이 요청된다는 사

49) 『경서석의』의 음주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분석은, 심경호, 「退溪 經書釋義의 音注에 관하여」를 참조할 것.

실을 깊이 이해하고, 훈고학의 방법을 경전의 『논어석의』에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특히 그 음주는 한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른바 조선적 훈고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없는 독실한 주자학도였기에, 평생 주자학적 의리에 충실했으며 또 이를 그 나름으로 소화하여 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그 결과 퇴계의 『논어』 해석도 『논어집주』에 반영되어 있는 주자 경학의 이기 심성론에 대한 의리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방향으로 행해지곤 하였다.⁵¹⁾ 이는 『논어석의』에도 반영이 되어 그 경문언해의 대부분은 주자주에 대한 정밀한 독해의 기초위에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논어석의』에서 『논어집주』의 의리와는 다른 새로운 지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퇴계 『논어』설의 이같은 경향은 결과적으로 주자 이후 주자학파의 『논어』주석이 지향했던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천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논어석의』에서 보다시피 주로 주자주에 대한 정밀한 독해를 바탕으로 경문을 언해하지만, 때로는 경문의 본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경문을 읽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문맥과 문리에 알맞은 적의한 경문해석을 찾으면, 이를 언해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퇴계의 주자주에 근거한 정밀한 경문독해는 영남퇴계학파로 이어지며, 경문의 본지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경문독법은 근기퇴계학파로 계승이 된다.

한편 퇴계는 한자(어)의 훈주와 음주에 대한 훈고학적 측면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자학파의 『논어』 해석사에서 매우 깊은 의의를 가진다

50) 심경호, 「퇴계와 다산」, 『퇴계학과 한국문화』,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3, 110쪽.

51) 『退溪先生文集』卷之三十三, 「答許美叔筭」,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吳氏曰: ‘逝字, 指道, 斯字, 方指水.’ 竊恐太分析, 無意味. 若以爲逝字, 喻水流行之體, 如斯, 嘆美之辭, 如此看則如何. 吳說是也. 集註, 天地之化, 往者過, 來者續, 無一息之停, 乃道體之本然也. 此正說逝字爲道處, 其下云可指而易見云云, 是說斯字.”

고 본다. 왜냐하면 '석의'라는 주석양식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주자 이후 주자학파의 『논어』주석사에서 도외시되었던 훈고를 되살려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퇴계의 『논어』설이, 주자의 『논어』해석이 지향한 의리와 훈고의 종합이라는 과제를 계승해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훈고가 당대의 어음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선화된 경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자학적 의리에 조선적인 훈고가 결합된 이 『경서석의』는 당대에 이미 학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 책을 찾아 읽고 경서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⁵²⁾ 또한 이 책은 후일 관본언해인 교정청 언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다. 『논어석의』에 수록된 내용이 조선의 『논어』해석사에서 퇴계학파뿐 아니라 율곡학파에서도 거론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퇴계의 이같은 『논어』해석의 경학적 특징이 퇴계학파에 의해 어떻게 계승되어 나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3. 퇴계학파의 『논어』해석과 그 分化의 樣相

晦峯 河謙鎭이 퇴계학안을 가리켜 우리나라 일천년 유학사의 大一統學案이라고 평했듯이, 퇴계 이후 퇴계학파는 영남뿐 아니라 근기지역에서도 성대한 학맥을 형성하였다. 이 두 학맥은 비록 퇴계의 문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학풍에 있어서는 서로 구분되는 독특한 색깔을 지녔다.

52)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 「與安道孫」. “論語吐及訂說(訂說疑是先生所解論語說—『退溪先生文集攷證』卷之七, 「第四十卷 書」, 金君求見.”; 『月川先生文集』卷5, 「退溪先生言行總錄」. “於是經書有訂議, 則凡俗學之膠固穿鑿者, 參互考訂以歸於正.”

이에 대하여 근세 昌寧에 기거했던 深齋 曹兢變(1873-1933)은, 영남의 학은 精嚴하여 항상 원리에의 回歸와 마음 수양으로 주를 삼은 데 비해, 근기의 학은 宏博하여 응용위주로 시국을 바로 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⁵³⁾ 라고 그 분화의 양상을 논하기도 하였다. 심재가 논한 이같은 분화의 양상은 영남과 근기퇴계학파의 『논어』주석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심재의 말은 곧 이 두 학맥의 『논어』설의 분화의 양상을 논한 것이라 평가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영남과 근기 퇴계학파의 이같은 학설(『논어』설)의 분화의 양상도 결국은 퇴계라는 시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퇴계의 『논어』설은 또한 주자학파의 그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퇴계학파의 『논어』설을 살펴 보면서 그 경학적 특징이 퇴계 더 나아가 주자학파의 『논어』주석사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1) 영남 퇴계학파의 『논어』 해석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남 퇴계학파 내에서 경학사적으로 유의미한 경학저술을 남긴 경학가는 열다섯 분 정도이다.⁵⁴⁾ 그런데 퇴계 이후 19

53) 『深齋集』권27, 「朴晚醒先生墓碣銘序」, 경문사 영인본, 1980, 422쪽. “嶺南精嚴, 常主於守經反約. 畿學宏博, 多急於應用救時.”

54) 艮齋 李德弘(1541-1596):『四書質疑』 및 『周易質疑』. 芝山 曹好益(1545-1609):『大學童子問答』 및 『易象說』. 旅軒 張顯光(1554-1637):『易學圖說』. 愚伏 鄭經世(1563-1633):『喪禮參考』 및 「金沙溪經書疑問辨論」. 大山 李象靖(1711-1781):『決訟場補』(禮書임) 및 文集의 經說. 東巖 柳長源(1724-1796):『四書纂註增補』. 槐潭 裨相說(1759-1789):『四書纂要』. 定齋 柳致明(1777-1861):『讀書瑣語』 및 經學 관련 산문. 大埜 柳健休(1768-1834):『東儒四書解集評』 및 經學 관련 산문. 凝窩 李源祚(1792-1871):『僞古文十六言辨』, 「大學講義」, 「讀書會疑」. 寒洲 李震相(1818-1886):『求志錄』 내의 四書五經筭義. 西山 金興洛(1827-1899):雜著 내의 經學 관련 산문. 俛宇 郭鍾錫(1846-1929):『茶田經義問答』. 眞庵 李炳憲(1870-1946):『李炳憲全集』 내의 經學관계 저술. 重齋 金槐(1896-1978):『瑣記』 내의 經學관계 저술.

세기 중반까지 『논어』에 관한 전저를 남긴 경학가로는 良齋 李德弘(1541-1596), 東巖 柳長源(1724-1796), 槐潭 裴相說(1759-1789), 大埜 柳健休(1768-1834) 정도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良齋는 『論語質疑』(『四書質疑』所收)를, 東巖은 『論語纂註增補』(『四書纂註增補』所收)를, 槐潭은 『論語纂要』(『四書纂要』所收)를 大埜는 『東儒論語解集評』(『東儒四書解集評』所收)을 남겼는데, 槐潭의 『사서찬요』는 현재 『대학』, 『중용』 부분만 전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분의 『논어』 전저만이 현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이 경학가들의 『논어』 전저를 중심으로 영남 퇴계학파의 『논어』 해석의 경학적 특징과 그 『논어』주석사적 의미를 짚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良齋 李德弘(1541-1596)의 『論語質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柳尋春이 쓴 『良齋集』 발문에 의하면, 간재는 어린 나이 때부터 퇴계 선생의 문하에서 학업을 전수받았는데, 朝夕으로 책을 들고 가서 질의를 했다고 한다. 『論語質疑』는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온 경학저술로, 퇴계 선생에게 질의한 내용과 벗들 간에 강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孔門의 『논어』에 비견되는 평가를 받았다.⁵⁵⁾ 이 평가대로라면 『논어질의』의 가장 큰 특징은 퇴계의 『논어』설에 대한 계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재의 『논어질의』가 가지는 경학사적의의는 단순히 이렇게만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논어질의』의 경학적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55) 柳尋春, 『良齋集』續集, 「跋文」, “良齋李先生, 自童卅時, 受業於退陶老先生至門. —朝夕函丈, 持書質疑, 不得不措. —孔門高弟, 盖多魯人, 而魯論一書, 皆出於當時門人之所記. —今觀於先生遺集—直與魯論同其功. —至於質疑註解諸篇, 乃師友間講論就正之作, 而有疑必問, 有得必書, 精粗本末, 咸備而無遺.”

㉔ 경문과 주자주의 한자(어)에 대한 훈주와 음주

① 훈주→『論語質疑』「里仁」.“樂處，樂，卽逸樂之樂，非眞樂也。所理，理，謂治也。斯不亡，斯，虛字，非指心與理也。”

② 음주→『論語質疑』「公冶長」.“縹緲，縹音尼，俗云縹，非也。反切雖曰力追。然追字，吾亦不曰累而曰尼。縹與追二字，俱見於支韻，可知縹字尼音也。若累云則固不在於支字無疑也。此時俗音韻之不能分辨處也。”

㉕ 이기십성론의 경학적 반영

『論語質疑』「陽貨」.“性兼氣質，性非有二，只是不雜乎氣質而言，則爲本然之性。就氣質而言，則爲氣質之性。”

㉖ 주자언론동이에 대한 관심

『論語質疑』「爲政」.“退而省，延平先生說，以退爲夫子退也。朱子初從其說，故小註朱說，有與延平同者。其後改之，故曰非夫子退也。”

우리는 퇴계 『논어』설의 경학적 특징으로, 첫째는 경문의 본지추구를 지향하는 다양한 독법을, 둘째는 주자학적 의리에 조선적 훈고의 결합을 거론하였다. 간재는 기본적으로 퇴계의 독실한 제자이며 『논어질의』가 퇴계의 사사 아래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간재의 『논어』설이 퇴계 『논어』설의 연장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퇴계의 훈고 정신은 ㉔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는데, 중국의 훈고만을 추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조선의 음과 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논어질의』에서 반영해 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⁵⁶⁾

56) ㉔-②에서 보드시피 간재는 당시의 속음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자신의 『논어』설에서 반영해 내었다. 그리고 “聘君，劉勉之隱居，時君以幣聘之，而終不起故云。聘君與徵君之義同。今人不知此意，婦翁皆稱聘君，非也。(論語質疑)「雍也)」”라는 언급에서 보드시피, 간재는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의 의미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편 ㉓와 ㉔의 예에서 보듯이 간재 『논어』설의 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조선주자학의 중심과제인 이기심성론과 주자설의 異同에 대한 탐구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추구이자, 스승인 퇴계의 설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보면 師說의 계승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 주자학파의 『논어』 해석에 나타나는 일반적 성향이며, 간재 이후 영남 퇴계 학파의 『논어』 해석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때문에 우리는 간재의 『논어』설이 주자학파에서 퇴계로 이어지는 『논어』설의 계승임과 동시에 영남 퇴계학파의 『논어』설의 전형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간재 이후 퇴계학통에서 뚜렷한 『논어』주석서를 남긴 분은 많지가 않다. 愚伏 鄭經世(1563-1633)의 경우 율곡학파의 『논어』설에 대한 비판을 통해 師說을 계승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⁵⁷⁾ 대개가 『논어』에 대해 단편적 견해를 피력 하는 정도였다. 이후 18세기에 들어와서야 영남 퇴계학파에서 주목할 만한 『논어』주석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東巖 柳長源이 지은 『論語纂註增補』(『四書纂註增補』所收)이다.

그 오류를 지적하여 바로잡고자 하였다. 후일 같은 퇴계학통에 속하며 조선후기 경학의 대가로 시문학 방면에서 '朝鮮詩'를 주창한 다산도 이에 대하여 비슷한 견해를 제출하였는데, 조선어에 대한 관심은 이처럼 퇴계학통의 원두에 이미 존재했었다.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四卷, 「雅言覺非」卷二. “聘君者, 徵士也. 朝廷以玉帛聘之, 故謂之聘君. 南史陶季直, 澹於榮利, 徵召不起, 號曰陶聘君, 聘君者徵君也. 朱子娶令人劉氏, 劉氏之父, 亦本徵士, 故朱子稱之曰劉聘君. 東人錯認, 遂以妻父爲聘君, 又轉爲聘父, 以妻母爲聘母.”

- 57) 沙溪 金長生은 퇴계의 『논어』설에 대하여, “愚意, 亡乃死亡之亡. 若如上三說(이 세가지 설은 退溪, 漢書, 直解의 설로서 모두 ‘亡’을 ‘有亡之亡’, 즉 ‘無’은 것을 말함-인용자), 則集註必有亡無通之訓矣. 蓋此人不應有此疾一段, 是解命矣夫之文, 非解亡之兩字也. 栗谷先生, 亦以存亡之亡看.(『經書辨疑·論語』「雍也.))”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愚伏 鄭經世는 다음과 같이 사계의 설을 비판하고 퇴계의 설을 지지하였다. 『愚伏先生文集』卷之十四, 雜著, 「金沙溪經書疑問辨論」. “亡之命矣夫. 退溪曰: ‘亡卽有亡之亡.’ 栗谷以存亡之亡看. 亡史記又作滅, 恐皆是無義. 若作死亡之義, 則之字不貼. 且古文無以蔑滅作死義者. 如何.”

東巖 柳長源(1724-1796)은 영남 일대에서 小退溪라 불리울 정도로 명망이 있었던 大山 李象靖(1711-1781)의 문인으로 李宗洙, 金宗德 등과 함께 '湖門三老'로 불리었던 분이다.⁵⁸⁾ 『四書纂註增補』는 그가 57세 되던 1780년에 편집한 책으로, 『論語纂註增補』는 이 중에 하나이다. 동암이 이 책의 범례에서, “정주의 학설을 위주로 하여, 정의, 집략, 대전, 흑문, 어류 등 五書에서 인용한 것을 정행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쌍주로 하였다.”라고 하였듯이, 『論語纂註增補』는 기본적으로 중국주자(학파)의 『논어』 해석을 『논어집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채록하여 놓은 책이다. 특히 쌍주로 처리해 놓은 부분은 원명대 주자학파의 『논어』 해석이 다수를 차지하며, 조선 학자들의 견해도 소수 실려있는데 퇴계의 『논어』설이 10조목으로 가장 많다. 한편 『論語纂註增補』 본문의 위에 첨주로 기록된 동암의 안설은 45조목으로 그 내용은 주자의 학설을 『논어집주』의 기사와 관련시켜 검토한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논어집주』와 주자의 여타 『논어』 해석과의 상이함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동암은 이 내용상의 모순만을 지적했을 뿐이지, 그 중에 어떤 것이 정론이라고 단안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책의 기본적 성격이 『논어집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주자학파 『논어』설의 집성이자, 주자언론의 同異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놓은 일종의 자료집임을 알 수 있다. 주자언론의 동이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목적은 주자 학설의 정론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는 퇴율 양 학파 모두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사였다. 후일 율곡학파의 주자언론 동이에 관한 학설이 『朱子言論同異攷』라는 저술형태로 나타났는데 비해, 퇴계학파의 그것은 이처럼 경학저술을 통해 발휘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8) 이하의 서술중, 『論語纂註增補』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주로 안병걸 교수의 「동암 유장원의 경학사상」(『퇴계학』창간호,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9)에서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동암의 『論語纂註增補』는 중국주자학파의 의리중심의 『논어』설을 집성해 놓은 의의를 넘어서, 퇴계에서 비롯되어 간재에게로 이어졌던 주자언론동에 관한 영남 퇴계학파의 학적 탐구의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암의 제자 중에 柳健休라는 걸출한 경학가가 나와서, 그의 스승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퇴계학파의 『논어』주석사에 의미있는 저술을 남겼다.

大埜 柳健休(1768-1834)는 동암 유장원을 사사하여 경학연구의 일가를 이룬 학자이다. 그가 지은 『東儒論語集解評』(『東儒四書集解評』所收)은 16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조선학자들의 『논어』설만을 집성해 놓은 책으로, 조선경학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학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유논어집해평』의 경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필자가 분석한 도표를 먼저 보기로 하겠다.

<『東儒論語集解評』에 인용된 인물과 인용빈도>

인용빈도	성명(생몰년)	학맥	인용빈도	성명(생몰년)	학맥
61조목	大山 李象靖(1711-1781)	퇴계학파	45조목	南溪 朴世采(1631-1695)	율곡학파
25조목	退溪 李 滉(1501-1570)	퇴계학파	17조목	農巖 金昌協(1651-1708)	율곡학파
14조목	東巖 柳長源(1724-1796)	퇴계학파	10조목	密菴 李 栽(1657-1730)	퇴계학파
9조목	約齋 權 炳(1723-1772)	퇴계학파	5조목	壺谷 柳範休(1744-1823)	퇴계학파
4조목	槐潭 裨相說(1759-1789)	퇴계학파	4조목	尤庵 宋時烈(1607-1689)	율곡학파
3조목	愚伏 鄭經世(1563-1633) 川沙 金宗德(1724-1797)	퇴계학파	2조목	月川 趙 穆(1524-1606) 九思堂 金樂行(1708-1766) 存齋 李徽逸(1619-1672)	퇴계학파
1조목	栗谷 李 珥(1536-1584) 沙溪 金長生(1548-1631)	율곡학파	1조목	屏谷 權 槩(1672-1749) 葛庵 李玄逸(1627-1704) 霽山 金聖鐸(1684-1747)	퇴계학파
1조목	晩谷 趙述道 李箕疇	?	/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대야 유건휴는 『동유논어집해평』에서 총23인의 조선학자들의 『논어』 주석 중, 215조목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용 범위는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에 걸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야가 어떤 특정 학파의 『논어』설 만이 아닌, 16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조선 경학가들의 『논어』설의 핵심을 수집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조선 경학가의 『논어』설의 보고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유논어집해평』은 현재는 볼 수 없는 조선경학가들의 『논어』설도 수집해 놓았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용 빈도에서 보듯이 『동유논어집해평』은 기본적으로 영남 퇴계학과 『논어』설의 집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스승의 스승인 大山 李象靖(1711-1781)과 퇴계학파의 비조인 퇴계의 『논어』설을 집중적으로 채록해 놓았다는 데서, 동암의 경학적 지향 중의 하나가 사설의 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내용에는 조선주자학의 중심과제인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에 관한 조선학자들의 언설이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서 영남 퇴계학파의 『논어』설에 담긴 또 다른 경학적 지향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심성론을 중심으로 하는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精緻한 탐색이다. 경학에 있어서 의리와 훈고는 쌍수적인 관계여야 하지만, 한쪽이 승하면 다른 쪽은 기울지게 되는 것이 경학사적 실상이었기에, 실제 경학사에 있어서 『논어집주』처럼 이 둘을 조화롭게 반영해낸 주석서는 드물다. 주자학적 의리가 그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동유논어집해평』에서, 퇴계 경학의 한 축이었던 훈고에 대한 계승이나 학문적 축적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퇴계와 간재의 『논어』설과 동암과 대야의 『논어』설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성 또한 존재한다. 퇴계와 간재의 『논어』설의 중요한 경학적 특징으로 꼽은 훈고에 대한 관심이 동암과 대야의 『논어』설에는 거의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공통점에 주목하여 영남퇴계학파의 『논어』 해석의 경학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서 深齋 曹兢燮이 영남 퇴계학파의 학문을 평가하면서, “영남의 학은 精嚴하여 항상 원리에의 回歸와 마음 수양으로 주를 삼는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심재가 말하는 정엄과 원리에의 회귀, 마음 수양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영남퇴계학파의 『논어』 주석의 경학적 특징과 그 맥이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퇴계와 간재 이후 동암에 의해 이룩된 주자설의 異同에 대한 精緻한 비교와 대야에 의해 정리된 이기심성론과 수양론을 위주로 하는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치밀한 탐색이 곧 심재가 평가한 영남 퇴계학의 경학적 반영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암과 대야의 『논어』설은 전자는 중국주자학파의 『논어』설을 정리하고 후자는 조선주자학파의 『논어』설을 선집했기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국과 한국 주자학파의 『논어』설에 대한 최초의 집성본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논어』 주석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경학저술의 저류에는 『논어집주』에 투영되어 있는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추구라는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자 이후 중국주자학파가 견지했던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학문적 탐색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그 『논어』 주석사적 의미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암과 대야가 밝혀내고자 했던 주자학적 의리-그것이 중국 주자학파의 견해든 한국 주자학파의 견해든 상관없이-는, 주자가 제시한 의리의 틀 안에서 이를 정리하고 그 깊이를 확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지향하는 의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자와는 다른 새로운 의리의 지향은 아무래도 『논어집주』에서 벗어나 경문 그 자체를 중시하는 자세, 또는 주자의 『논어』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근기 퇴계학파의 『논어』 해석에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여겨진다.

2) 근기 퇴계학파의 『논어』 해석

退溪와 眉叟 許穆(1595-1682)에 연원을 두고 있는 근기 퇴계학파는 星湖 李瀼(1681-1763)이 그 중시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성호 이후의 근기퇴계학파는 그들의 학문성향에 따라 이른바 성호 좌파와 우파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중 성호 우파는 安鼎福→黃德吉→許傳으로 이어지고, 성호 좌파는 權哲身→丁若銓, 丁若鏞로 계승되었다고 한다.⁵⁹⁾ 그런데 성호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근기 퇴계학파는 모두 경학저작물을 남겼다.⁶⁰⁾ 이 중 『논어』에 관한 전저를 남긴 분은 성호와 다산이며, 邵南 尹東奎(1695-1773), 貞山 李秉休(1710-1776), 順庵 安鼎福(1712-1791) 등도 근기퇴계학파의 특징을 보여주는 『논어』 관련 산문을 남겨놓았다. 그러면 성호 이익의 『논어』 해석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근기퇴계학파의 『논어』 해석의 경학적 특징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성호 이익의 학문에 대한 당시대의 평가는 세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自得之學⁶¹⁾, 程朱와 退溪의 충실한 계승자⁶²⁾, 경전주석학에 있어서 漢學

59) 이우성, 「韓國 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3, 94쪽 참조.

60) 필자가 조사한 근기 퇴계학파의 경학저술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眉叟 許穆(1595-1682) : 『經禮類纂』 및 『記言』 「內篇」의 經說. 星湖 李瀼(1681-1763) : 『疾書』내의 경학관련 저술. 邵南 尹東奎(1695-1773) : 『邵南遺稿』내의 經學 관련 산문. 貞山 李秉休(1710-1776) : 『貞山雜著』내의 경학관련 산문. 順庵 安鼎福(1712-1791) : 『經書疑義』. 下廬 黃德吉(1750-1827) : 『下廬文集』내의 「講義大學」, 「講義中庸」. 茶山 丁若鏞(1762-1836) : 『與猶堂全書』내의 經學관련 저술. 性齋 許傳(1797-1886) : 『性齋集』내의 「經筵講義」 및 여러 경학저술. 舫山 許薰(1814-1879) : 「李寒洲論語筭義辨」 외의 여러 경학 관련 산문.

61) 李秉休 撰, 「家狀」, 『星湖全書』二, 여강출판사, 1984.

62) 尹東奎 撰, 「行狀」, 『星湖全書』二 ; 『與猶堂全書』第一集 第十九卷 文集, 「答李文達」. “蓋星翁之學, 一生尊信朱子, 故諸經疾書, 皆就朱子傳註, 發揮而闡揚之.” ;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一卷 文集, 『西巖講學記』. “木齋曰, 從祖於大學, 篤信朱子章句, 未嘗有一毫致疑, 故凡屬異說, 初不參驗. 至於疾書, 是大學章句

에 접맥해 있는 학자⁶³⁾ 등이다. 성호의 학문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성호를 종래의 주자학자와 구별해주는 뚜렷한 증표이다. 그러면 성호가 남긴 『論語疾書』의 분석을 통해, 성호 경학의 지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호는 주자 경학, 특히 『논어집주』를 매우 극찬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논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어집주』를 연구하고 이를 길잡이로 삼아야 된다고까지 하였으며,⁶⁴⁾ 『논어질서』에서도 주자의 주석에 대하여 부연하기도 하였다.⁶⁵⁾ 성호의 이같은 언급과 설정자세는 종래 조선 주자학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언급은 우리에게 자못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 주석서(『논어집주』-인용자)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자의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주자가 이 주석을 쓸 때 먼저 옛 학설 가운데서 수용할 만한 것은 수용하여 구태여 새로운 해석을 내리지 않았고—또한 문하의 제자가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개진한 것도 조금이라고 뛰어난 점이 있으면 모두 채택하고 버리지 않았다.—아무리 부족한 사람의 견해일지라도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서 올바른 해석이 있기를 기대하였으니, 잘못된 곳이 있으면 이를 저지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장점을 모아 가지고 올바른 것을 파악하였으니 이것이 주자요, 곧 『논어집주』다.⁶⁶⁾

疾書, 非大學疾書.”

63)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一卷 詩集, 「過剡村李先生舊宅時省安山丘墓」, “指趣近鄒阜, 箋釋接觸玄.”

64) 『國譯 星湖疾書·論語』, 「論語疾書序文」,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8, 3쪽. “여러 해석이 분분했으나 주자에 이르러 이를 정리하여 표준을 정하여 이 학문이 하나로 통일되었고, 주자의 『논어집주』가 비로소 길잡이가 되었으니 세상을 바로잡는 교육에 있어서 어찌 이 주석서가 없어서 되겠는가? 이는 다행중의 다행인 것이다! 『논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주석서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65) 『國譯 星湖疾書·論語』, 「學而」1장, 5쪽. “새가 처음으로 둥지에서 나와 처음 나를 때의 그 기쁨은 알만하다. 배운 것을 때때로 복습해 보는 기쁨 또한 그와 같다.”

66) 『國譯 星湖疾書·論語』, 「論語疾書序文」, 3~4쪽.

성호는 『논어집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자의 정신을 먼저 체득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성호가 말하는 주자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자가 『논어집주』를 쓸 때 옛 학설, 새로운 학설, 제자들의 견해,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 등에 관계없이 올바른 해석이면 모두 자신의 경설에 채용하는 열린 정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열린 정신은 기존의 주석서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권위있는 기존주석이라 하더라도 懷疑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성호는 당대의 사람들이 『논어집주』를 존중하기만 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주자의 이같은 열린 정신을 되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성호가 생각하는 주자의 학문정신은 깊은 생각을 통한 의문의 제기인데, 당시 사람들은 주자의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경전을 볼 때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잘못이라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주제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비록 주자의 정신이라는 말을 빌리기는 했지만, 경전을 볼 때 깊이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성호 경학의 기본지향이라 여겨진다.⁶⁸⁾ 경전을 볼 때 깊이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는, 일단 기존의 경전주석에 부여되어 있는 권위의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성호는 주자의 『논어집주』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⁶⁹⁾ 그런데 성호의 이같은

67) 『國譯 星湖疾書·論語』「論語疾書序文」, 4쪽. “지금은 이 책을 존중하지만 그 정신을 잃었으며, 그 글은 읽으면서도 그 뜻은 등지고 있다. 즉 깊이 생각하면 잘못이라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주제넘다고 한다.”

68) 성호 경학의 이같은 지향을, 최석기 교수는 ‘本旨探求’와 ‘懷疑精神’이라고 표현하였다(최석기, 「星湖 李瀼의 窮經姿勢」, 『韓中日 三國의 經學發展의 意味와 性格』,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논문발표집, 1995 참조).

69) 『國譯 星湖疾書·論語』, 「八佾」10장, 34쪽. “이 표현(체 제사는 강신주를 따른 뒤로는 내 보고 싶지 않다)은 완곡하면서도 절실한 것이니, 사실은 禘祭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논어집주』에서처럼) 단지 ‘성의가 점차 해이해져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당시 노나라의 제사가 모두 그러했을 것이니 유독 체제사를 문제삼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우선 의문점을 적어둔다.”

은 의문은 의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본지에 대한 깊이있는 사색과 탐구를 통해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仁은 性이고, 性은 곧 理이다. 인이 발현된 것이 곧 사랑[愛]이니, 사랑은 곧 감정이다. 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감정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인은 덕으로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덕[心之德]’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氣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기가 아니면 理가 붙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⁷⁰⁾

仁을 性으로 보고 그 性이 곧 理라는 주장은 주자학의 고유한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과 감정으로 연결시켜 이에 무게 중심을 둔다거나, 仁에 있어서 그 氣의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은 경전 해석에 있어서 자못 새로운 지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성호의 이같은 경학적 지향은 형이상학적 이기심성론이 중심에 있는 주자학적 의리와는 방향을 달리하는 새로운 의리의 추구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이같은 새로운 의리의 추구에는 실천을 중시한다거나,⁷¹⁾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등⁷²⁾의 종래 주자학파에 의해 구축

70) 『國譯 星湖疾書·論語』, 『學而』2장, 6쪽.

71) 『國譯 星湖疾書·論語』, 『學而』1장, 5쪽. “정자의 해석의 첫 구절에서는 복습을 앞 에 대한 것으로 풀이하였고, 뒷 절에서는 복습을 실천에 대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따라서 배움 자체는 실천과 결부시킨 것이 없으니 주자의 해석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실천에는 두가지가 있다. ‘사색을 철저히 하는 것’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요, ‘배운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곧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배움과 복습이 모두가 다 실천하는 것이다.”

72) 『國譯 星湖疾書·論語』, 『里仁』12장, 46쪽. “利라는 것은 義의 소산이다. 천지간에 본시 이런 이치가 있게 마련이다. 이익이 있어 만일 내 것과 내 것이라는 구별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나쁠 까닭이 없다. 성인은 천하를 한 집안으로 여겨서 본시 다같이 사랑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익은 많을수록 좋으며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였다.—이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요, 남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사적인 것이요 공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익은 추구해서는

된 주자학적 의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내용들도 내포되어 있다.

성호의 이같은 『논어』 해석은 퇴계학파의 『논어』주석사에서 가히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퇴계 이후 영남의 퇴계학파는 줄곧 『논어집주』에 담겨있는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정심한 추구를 그들의 『논어』주석서에서 보여주었으며, 퇴계를 중심에 둔 師說의 준수를 철저하게 밀고 나갔다. 그런데 성호는 『논어집주』의 의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자의 의리지학이 나오게 된 그 정신에 주목을 하였다. 주자는 유학을 새롭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도하에 종래의 주석뿐 아니라 경문 자체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심을 하였고(疑經), 그 의심이 깊어지면 경문을 뜯어 고쳤고(改經), 그래도 부족하면 경문을 직접 만들기 까지 하였다(造經).⁷³⁾ 이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자의 의리지학을 가능케 한 기본 정신은 기존의 경과 전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다. 성호는 주자의 이러한 정신에 주목했기 때문에 경과 전의 권위에 간하지 않고, 자신의 사유에 근거해 『논어』를 읽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향성을 『논어질서』에 불러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성호는 퇴계의 理發說을 지지하고 율곡의 理無爲說을 비판하였으며,⁷⁴⁾ 한결같이 퇴계에 대한 존숭의 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호의 『논어질서』에는 비록 퇴계의 『논어』설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경문의 본지를 파악하기위해 경문을 정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자 노력한 퇴계의 『논어』 해석 자세를 계승한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안된다. 그러나 내 한 몸 내 집안을 이롭게 하면서 천하에 미룬다고 해도 폐해가 없는 것이면 이는 공적인 이익이 된다.—이것이 성인이 추구하는 이익이다.”

73) 諸橋轍次 著·林慶彰 譯, 「唐宋의 經學史」, 『經學史』, 萬卷樓, 民國85年 참조.

74) 『星湖全書』七, 「四七新編」, 26쪽. “朱子曰,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如此之類, 不勝枚舉. 栗谷何據而云然.”; 『星湖全書』四, 「近思錄疾書」, 789쪽. “理亦非枯然死物, 故曰理動而氣動也.”

성호 이후 근기 퇴계학파는 성호의 이같은 회의와 비판의 정신을 잘 계승했는데, 邵南 尹東奎, 順庵 安鼎福, 貞山 李秉休, 錦帶 李家煥 등은, 이러한 계승의 양상을 그들이 남긴 단편적인 『논어』설에 잘 반영해 내고 있다.

邵南 尹東奎(1695-1773)는 이른바 성호 우파에 속하는 학자로서, 성호가 지은 『四七新編』의 ‘聖賢七情’설의 논의에 참여하여 스승인 성호의 견해를 되돌릴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다.⁷⁵⁾ 성호 우파의 경우 성호좌파에 비해 주자학에 대하여 매우 온건한 입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남의 『논어』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소남의 『논어』설은 스승인 성호처럼 하나의 뚜렷한 지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문을 자신의 문리에 따라 읽고 나서 주자의 설을 비판한 점으로 보아,⁷⁶⁾ 성호의 회의와 비판의식은 계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성호 우파 계열에 속하는 또 다른 학자인 順庵 安鼎福(1712-1791)은 당시 성호학과 내에서 지나치게 주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⁷⁷⁾ 그러나 그 또한 무비판적으로 주자의 경설에 침잠했던 것은 아니다. 주자 『논어』설의 미진한 부분뿐 아니라, 퇴계학파의 비조인 퇴계 『논어』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만큼⁷⁸⁾

75) 김용걸, 『성호 이익의 철학사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108-109쪽 참조.

76) 『邵南集』, 「經說·論語·學而」, ‘學而’, “愚意不已者, 時時之意也. 學恐習字之誤也.”; 『邵南集』, 「經說·論語·顏淵」, ‘顏淵問仁’章, “顏淵問仁章, 克己註云己者, 謂身之私欲. 又下文非禮註云, 非禮, 己之私也. 是則己是身之私欲, 而非禮又是己之私也. 語意恐重疊未安也. 竊意己即視聽言動四者也, 程子所謂四者身之用者, 即己者訓詰也. 非禮即私欲也, 程子所謂非禮處, 便是私意者是也.”

77) 『順庵先生文集』卷之十一, 「雜著·經書疑義·論語」, ‘述而’, “後世學者, 多有師心立說, 自作門戶. 程朱後世之聖人也. 雖有一二箋註間, 差誤之處, 豈可以是掩其大體也? 必欲自立其說, 而詆訛之不已, 此有明以後諸儒之無忌憚也. 後學之所當警念處.”

78) 『順庵先生文集』卷之十一, 「雜著·經書疑義·論語」, ‘鄉黨’, “賓不顧. 退溪曰, 凡人未慊事, 則多顧. 按此義, 未瑩. 凡人相別, 有顧戀之意, 則亦多顧不獨未慊然也.”

성호 경학의 비판정신을 계승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비판정신은 당시 학자들이 당파와 문호를 나누어 서로 헐뜯고 심지어는 해치는 지경에 까지 이른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⁷⁹⁾

성호 좌파 계열에 속하는 학자들의 『논어』설도 성호 우파 학자들의 『논어』설과 동일하게 주자의 『논어』해석에 대하여 거리를 두거나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예컨대 貞山 李秉休(1710-1776)의 경우, 스승의 『논어』설이 주자의 학설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했지만,⁸⁰⁾ 정작 자신은 주자의 『논어』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⁸¹⁾ 또한 錦帶 李家煥(1742-1801)의 경우, 아주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논어』의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자의 견해를 무시하고 邢昺의 『論語注疏』를 따르기도 하였다.⁸²⁾ 그리고 巽庵 丁若銓(1758-1816)의 경우, 『論語難』이란 저술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실전되어서 볼 수가 없다. 한편 성호 좌파에서 뿐 아니라 조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논어』 주석사에서 불멸의 『논어』 주석서를 남긴 학자가 있으니, 바로 茶山 丁若鏞이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이 저술한 『論語古今註』에는, 先秦 시대부터

-
- 79) 『順庵先生文集』卷之十一, 「雜著·經書疑義·論語」, 「子張」. “愚讀此章, 每慨然于學者分門詆排之弊, 以此章見之, 則子夏之教人, 必循序漸進, 下學而上達. 子游教人, 必多躡等. 想其時, 而門人, 必相詆排矣. 後世學者, 莫不皆然, 詆排不已, 至於分爭, 分爭不已, 至於傷害. 吁可畏也.”
- 80) 『論語稟目』 「不重不威」章. “不重不威章. 集註云, 輕乎外者, 必不能堅乎內. 此以不重屬之外, 而疾書則曰內無輕搖之意, 然後外有赫烜之容. 似有違於集註之旨矣. 然集註以不重不威, 同屬於外, 學不固屬於內, 則不害與疾書同義耶?”
- 81) 『論語稟目』 「賢賢易色」章. “賢賢易色章. 集註云, 有能如是之人, 苟非生質之美, 必其務學之至. 雖或以爲未嘗爲學, 我必謂之已學也. 竊思之, 子夏之言, 專爲質美者發, 務學一段, 似非此章之本意矣.” ; 『論語稟目』 「貧而無諂」章. “貧而無諂章. 集註云, 樂則心廣體胖而忘其貧, 好禮則安處善, 樂循理, 亦不自知其富矣. 臆以爲安處善, 樂循理, 本出於董生之說, 而於此章富而好禮之義, 似無襯緊.”
- 82) 『東稗洛誦續』. “論語齋必變以下至不多食. 刑氏疏云, 此已上皆蒙齋文. 凡言不食者, 皆爲不利. 人或致困病, 故不食. 惟酒無量, 則齋日亦飲之矣.”

19세기까지, 한중일 삼국의 『논어』주석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고증학과와 일본의 고학과, 그리고 당대 조선의 성호학과와 『논어』설⁸³⁾을 채록해 놓았으므로, 17~18세기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논어』주석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학사적 가치가 높은 저술이다. 다산의 『논어고금주』는 이처럼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학자들의 『논어』주석을 채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경학적 지향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다산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다산의 경학체계, 특히 『논어』주석체계에는 다산 경학의 지향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다산의 『논어』주석의 경학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첫걸음을 우선 퇴계학과에 대한 다산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다산은 성호를 사숙하였는데, 그의 중형인 巽庵 丁若銓에게 올리는 편지에서, “星翁이 지은 책은 근 백 여권에 가까운데, 우리들이 천지의 크기와 일월의 밝음을 아는 것은 모두 이분의 힘입니다”⁸⁴⁾라고 할 정도로 성호의 학문에 대한 존경의 념을 가졌다. 이 때문에 다산은 金井察訪으로 좌천되었던 시절에 성호의 종손자인 木齋 李森煥을 위시한 이 지역의 남인 학자들과 더불어 성호문집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한편 다산은 퇴계에 대해서도 존경의 념을 아끼지 않아서, 퇴계서간문에 대한 독서록인 『陶山私淑錄』을 저술하기도 했다.⁸⁵⁾ 이 저술 역시 금정찰방 시절에 이루어졌는

83) 『논어고금주』에 인용된 성호학과와 면면을 보면, 鹿菴 權哲身, 木齋 李森煥, 貞山 李秉休, 巽庵 丁若銓(1758-1816), 紘甫 李綱會(1789-?), 紺泉 尹峒(1793-1853) 등인데, 특히 다산의 제자인 이강희의 설은 무려 9군데에 걸쳐 인용되고 있다(김영호, 「丁茶山の『論語』解釋에 관한 研究」, 성대 박사논문, 1993, 222쪽 참조).

84)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卷 文集, 「上仲氏」, “星翁文字, 殆近百卷, 自念吾輩能識天地之大, 日月之明, 皆此翁之力”

85)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二卷 文集, 「陶山私淑錄」, “乙卯冬, 余在金井, 適因鄰人, 得退溪集半部. 每日晨起, 盥濯訖, 卽讀其與人書一篇, 然後受掾屬參謁. 至午間隨錄演義一條, 以自警省, 歸而名之曰陶山私淑錄.”

데, 다산이 금정찰방에 보임하던 때는 정조 19년(1795년)으로 그의 나이 34세였다.⁸⁶⁾ 다산의 경학저술이 주로 그의 나이 40세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다산에게 미친 성호와 퇴계의 영향을 이에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다산은 사상적인 부분에서는 퇴계에게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고 하는데,⁸⁷⁾ 경학의 정신에 있어서는 성호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리에게서 흔히 실학을 탈주자학 또는 반주자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다산도 주자에 대하여 매우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漢學에 대해서는 추종했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다산은 퇴계학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주자에 대해서 시종일관 존경의 념을 지녔는데, 자제들에게 직접 주자서간문의 節要를 만들라고 종용하면서 그 體例까지 상세하게 잡아줄 정도였다.⁸⁸⁾ 그리고 혹 주자에 대한 비판을 한다할지라도, 항상 예의를 차리거나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곤 하였다.⁸⁹⁾ 이에 비해 다산의 한학(훈고학)에 대한 비판은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직접적이며⁹⁰⁾ 날카롭다. 그런데 우리는 다산이 이처럼 주자의

86) 丁奎英, 『俟菴先生年譜』(송재소, 『茶山詩研究』, 창작사, 1986에 所收), 228쪽.

87) 이에 대해서는 이동환, 「다산사상에서의 상제도입경로에 대한 서설적 고찰」,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창작과 비평사, 1990을 참조할 것.

88)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一卷 文集, 「寄兩兒」. “今以一部好書規模寄汝去, 汝須依此就朱子全書中抄取成編, 亦於後便寄來也, 吾當鑑定可否. 書成後須用好紙淨寫, 以吾序弁其首, 常置案上, 兄弟朝夕誦習可也. ○書名曰朱書余佩, ○篇目十二條, 一曰立志, 二曰革舊習, 三曰收放心, 四曰檢容儀, 五曰讀書, 六曰敦孝友, 七曰居家, 八曰睦族, 九曰接人, 十曰處世, 十一曰崇節儉, 十二曰遠異端. ○汝今力少, 無以博採群書, 只將朱子書一部, 按目抄取, 每日取十二條以成篇. ○和睦族之流, 若無以滿十二條, 則取四書集注增採之, 又不足則取小學增採之, 每加朱子曰三字以表之. 假令小學中採得張公藝事, 汝乃書之曰朱子曰張公藝云云.”

89) 이는 『論語古今註』의 「學而」편 만 읽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다산은 『논어고금주』에서 한대와 청대의 고증학과, 일본의 고학과 등의 설에 대해서는 ‘反駁’을 통해 그들의 『논어』설을 직접 비판한데 비해, 주자의 『논어』설에 대해서는 주로 ‘補充’이란 방식을 통해 주자설의 미비처에 보완을 하거나 비판을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하곤 하였다.

경학(송학)을 높이고 한학(훈고학)을 비판하는 논리에서 그의 경학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훈고학은 경과 전의 글자의 뜻을 밝혀 도학과 명교의 깊은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孔穎達과 賈公彥의 注疏를 천하 사람들이 바람에 쓸리듯이 받들었으니 성대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전수된 훈고가 모두 본래의 뜻(本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본지를 터득한 것이라 해도 글자의 뜻만 밝히고 구절만 바로 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선왕과 성현의 도학과 명교의 근원에 대해 그 깊은 뜻을 규명할 수가 없다.—무릇 漢儒의 설은 가까이는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조차 않고, 멀리는 세상을 교도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널리 듣고 많이 기억하는 것과 시문 잘 짓고 변론 잘 하는 것만 자랑하면서 한세상을 고루하다고 깔볼 뿐이다.⁹¹⁾

위의 인용문을 보면 다산의 훈고학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훈고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經傳의 자의를 분석하는 훈고학은 경전의 本旨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훈고학을 하는 유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들은 博覽強記와 언변에 몰두하느라 유학의 근본목적인 修己治人을 망각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산의 이같은 훈고학 비판에서 그의 경학의 한 축이 바로 경전에 본지에 대한 추구하고 수기치인에 대한 열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학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던 다산⁹²⁾은 주자의 경전

90)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一卷 文集「答二兒」.“馬融鄭玄雖曰儒者，權重一世，外堂與弟子講學，內堂貯聲妓爲娛，其繁麗豪富如此，宜其窮經未精。後來如孔賈諸公，皆儒林之達者，心氣未能精密，故所論多晦蒙。”

91) 『與猶堂全書』第一集 第十一卷 文集「五學論」二.“詁訓之學，所以發明經傳之字義，以達乎道教之旨者也。—孔穎達，賈公彥爲之疏釋，而天下靡然宗之，可謂盛矣。然其詁訓之所傳受者，未必皆本旨，雖其得本旨者，不過字義明而句絕正而已。于先王先聖道教之源，未嘗窺其奧而溯之也。—凡漢儒之說，—邇之不慮乎治心而繕性，遠之不求乎輔世而長民，唯自眩其博聞強記宏詞豪辨，以眇一世之陋而已。”

92) 漢學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던 다산은 당시 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石

주석에 녹아있는 의리지학의 정신에 심분공감하였다. 때문에 다산은 주자의 경전주석을 가리켜 斯道를 중흥시킨 공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유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⁹³⁾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의할 점은 다산이 주자의 의리지학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성호가 그랬던 것처럼 다산은 주자의 의리지학이 나온 그 정신에 공감을 하였다. 때문에 다산의 『논어고금주』에는 주자의 의리지학과는 다른 새로운 의리지학이 투영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단서를 다산의 仁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다산학과 주자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개념 중에 가장 선명한 것이 바로 仁에 대한 차이이다. 주자는 『논어집주』에서 ‘仁’에 대한 정의를 “愛之理, 心之德”이라고 내렸다.⁹⁴⁾ 즉 주자의 인은 사랑이나 마음과 같은 구체적 정감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리 또는 천부적인 덕성이다. 그런데 다산은 주자의 이같은 정의에 대하여 단연코 반대한다. 다산이 생각하는 인은 본심에 내재되어 있는 천부적이고 완전한 덕성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신하는 신하의 자리에서 임금은 임금의 위치에서 상대방에게 온 애정을 쏟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만이 성립되는 명칭이다.⁹⁵⁾ 다산처럼 현실에서의 구체적 인간관계의 결과물로서 인을 파악하는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현실의 구체적 인간을 중시하는 사유체계가 그 근저에 깔려있

泉 申綽(1760-1828)과 심각한 경학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대해서는, 實是學舍 經學研究會 編譯, 『茶山과 石泉의 經學論爭』(2000, 한길사)을 참조할 것).

93) 『與猶堂全書』第一集 第十一卷 文集 「五學論」二, “朱子爲是之憂之, 於是就漢魏 詰訓之外, 別求正義, 以爲集傳本義集注章句之等, 以中興斯道, 其豐功盛烈, 又非漢儒之比.”

94) 『論語集注』「學而」〈其爲人也孝弟〉章의 朱子註, “仁者, 愛之理, 心之德也.”

95) 『論語古今註』卷七, “仁者, 非本心之全德, 亦事功之所成耳.”; 『論語古今註』卷三, “仁者, 嚮人之愛也. 子嚮父, 弟嚮兄, 臣嚮君, 牧嚮民, 凡人與人之相嚮, 而譊然其愛者, 謂之仁也.”; 『論語古今註』卷二, “仁者, 至善之成名, 必君臣父子之間, 盡其人倫之愛, 或天下之民被其德澤, 然後方得爲仁.”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산의 생각에 의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니 심성이니 하는 추상적인 논의들이 아니다.

현실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인간의 인지가 깨여서 집단생활을 한 이후로부터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인간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인'의 실천이며, 그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정치니 예악이니 법도니 하는 인간사회의 '人文'이다. 때문에 다산은 『論語古今註』에서 '爲政以德'을 설명하면서 종래 古註와 新註에서 이 구절을 모두 '無爲'로 설명하는 것⁹⁶⁾에 반대를 한다. 현실세계 속에서 평화롭고 조화된 인간관계를 구축하려고 고심했던 공자가, 그 수단인 정치를 말하면서 '無爲'라고 말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자의 '爲政'은 곧 有爲의 정치이며, 이를 무위라고 한다면 바로 脫世俗을 주장하는 異端邪說이라는 것이다.⁹⁷⁾ 그리고 이러한 有爲로서의 훌륭한 정치는, 德教와 禮樂과 典章과 法도가 구성요소로서 작용을 하는데, 어느 시대이건 이러한 요소들이 그 사회의 정치체계에 올바르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망하고 人民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지식인은 당대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時務'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⁹⁸⁾ 우리는 여기에서 다산의 『논어고금주』에 내포되어 있는 경학적 지향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실세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그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의 중시이다. 이 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德教,

96) 『論語集解』에서 包咸은 “德者無爲，猶北辰之不移而衆星共之。”라고 했으며, 『論語集註』에서 朱子는 “爲政以德，則無爲而天下歸之，其象如此.”라고 했다.

97) 『論語古今註』卷二. “夫無爲則無政，夫子明云爲政，儒者，乃云無爲，可乎，不可乎？—凡言無爲而治者，皆異端邪說，非吾家之言也.—今爲政以德，明明有爲.”

98) 『論語古今註』卷十. “誠若周末文勝，周其再昌矣. 文之爲物，盛於西周，衰於東周，滅於秦，熄於漢，冷於唐，惟其文滅也. 故德教禮樂典章法度，不可復興—是則文亡之，故質亦亡也.—其勢之相乘相滅如此，而儒者一開口，輒以抑文爲主，豈所謂識時務者乎?”

禮樂, 典章, 法度 등으로, 이는 바로 경세의 도구에 다름이 아니다. 이로써 우리는 『논어고금주』에 나타난 다산 경학의 궁극적 지향이 修己에 바탕을 둔 治人, 즉 經世에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⁹⁾

다산의 『논어』설에 나타난 이같은 경세학적 지향은 다산의 의리지학이라는 점에서 주자의 의리지학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그러나 주자의 의리지학을 가능케 한 그 정신을 이었기에 당대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한 그만의 의리지학을 창출할 수가 있었다. 한편 이같은 의리지학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주석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문의 본지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는데, 이는 퇴계에서 성호로 이어지는 『논어』해석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리지학과 경문의 본지추구를 중시하는 다산의 『논어』주석은 퇴계학과 더 나아가 주자학과의 『논어』주석사의 발전도상에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4.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한국 유학사의 정점에 위치한 퇴계 이황의 『논어』해석의 경학적 특징과 조선에서의 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고찰한 내용들의 핵심을 간추려보는 것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사상사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퇴계는 주자학파에 속한다. 때문에 퇴계 『논어』해석의 경학적 특징은 주자(학파)의 그것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주자(학파)의 『논어』해석의 경학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는데, 주자의 경우 『논어집주』에서 의리와 훈고라는 경

99) 다산 경학의 경세학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영훈, 「茶山 經世論의 經學的 基礎」, 『다산학』 창간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0참조.

학의 주석방식을 종합해 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런데 원명청대 주자학파는 육왕학파와 사상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주자가 그의 경학저술에 반영해 놓은 의리와 훈고 중 주자학적 의리를 闡發하는 쪽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조선의 퇴계는 『論語釋義』를 저술하면서, 주자학적 의리를 드러내는 것을 그 기본 지향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경문의 본지를 탐구하고자 노력했기에 간혹 주자와 다른 해석이라 하더라도 문의와 문맥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논어석의』에서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의리와 더불어 주자 경학의 중요한 한 축인 훈고학적 측면을 매우 중시하고 이를 『논어석의』에 반영해 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퇴계의 『논어』해석은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천발과 경문의 본지탐구라는 서로 상반될 수도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었다. 또한 퇴계는 주자가 그의 경전해석에서 지향한 훈고와 의리의 종합이라는 과제를 계승해 내기도 했는데, 특히 『논어석의』에 반영된 훈고는 한글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조선화된 경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퇴계 이후 영남퇴계학파와 근기퇴계학파는 퇴계가 이룩해 놓은 경학적 성과를 다양하고도 특색있게 계승해 내었다. 영남퇴계학파의 경우, 艮齋 李德弘, 東巖 柳長源, 大埜 柳健休 등이 경학사적으로 의미있는 『논어』주석서를 저술하였다. 간재는 『論語質疑』에서 스승의 경설을 준수하여 훈고와 의리를 그의 『논어』해석에서 반영해 내었으며, 동암은 『論語纂註增補』에서 중국주자학파의 『논어』설을 집성해 놓았고, 대야는 『東儒論語集解評』에서 조선주자학파의 『논어』설을 집대성하였는데, 그 공통적 특징으로는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정심한 추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간재와 동암, 대야가 추구했던 주자학적 의리는, 주자가 제시한 의리의 틀 안에서 이를 정리하고 그 깊이를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영남퇴계학파의 『논어』

주석에는 주자와는 다른 새로운 의리의 지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주자와는 다른 새로운 의리의 지향은 어느 정도는 주자의 『논어집주』를 상대시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주자주가 아닌 경문을 중시하고 조선후기의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대한 대처의 이론을 경에서 찾으려고 한 근기퇴계학파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성호 이익을 종장으로 하는 근기퇴계학파의 경우, 『논어』관련 저술은 남긴 이는 성호와 다산 정약용이며, 단편적인 『논어』설을 남긴 이는 邵南 尹東奎, 順庵 安鼎福, 貞山 李秉休, 錦帶 李家煥 등이다. 이들이 남긴 『논어』주석서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경문의 본지추구와 朱子註의 상대화이다. 경문의 본지에 대한 추구는 퇴계의 『논어』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주자주의 상대화는 주자와는 다른 새로운 의리를 경문에서 찾고자 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자주를 상대화했다고 해서 주자의 의리지학을 경시하고 한학(훈고학)으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성호는 『論語疾書』에서 다산은 『論語古今註』에서 각기 주자의 의리지학을 한학에 우선하여 존송하고 있었다. 주자의 의리지학은 주자가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을 반영한 것이기에, 성호와 다산은 바로 주자의 이같이 의리지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때문에 성호와 다산은 조선후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의리를 그들의 『논어』주석에 투영시켜 놓았는데, 성호는 『논어질서』에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이익을 중시하였으며, 다산은 『논어고금주』에서 경세지학을 『논어』해석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자에서 조선의 퇴계학파로 이어지는 『논어』주석사를 과감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자가 『논어집주』에서 이룩한 훈고와 의리의 종합이라는 경학적 성과는 중국주자학파에서는 계승이 되지 않고, 조선의 퇴계에 와서야 계승되었다. 그리고 퇴계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주자학에 대한 정심한 이해와 경문의 본지에 대한 추구를 『논어석의』에 반영해 내었다. 한편 퇴계 『논어』 해석의 이같은 성과는 전자는 영남퇴계학파에 의해 후자는 근기퇴계학파에 의해 각기 계승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주자의 의리지학의 내용과 정신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論語集解』
『論語注疏』
『論語集註』
『四庫全書總目』
『論語稽求篇』

『增補退溪全書』
『四書釋義』
『良齋集』
『經書辨疑』
『四書纂註增補』
『東儒四書集解評』
『星湖全書』
『國譯 星湖疾書』
『邵南集』
『順庵先生文集』
『與猶堂全書』
『論語稟目』
『東稗洛誦續』
『俟菴先生年譜』
『深齋集』
『東儒學案』

김문식, 「19세기 전반 京畿學人の 經學思想과 經世論」,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5
김언중, 「退溪의 『論語釋義』小考」, 『退溪學報』 107,108합집.
김영호, 「丁茶山の 『論語』解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3.
김용걸, 『성호 이익의 철학사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실시학사경학연구회 編譯, 『茶山과 石泉의 經學論爭』, 한길사, 2000.

- 심경호, 「退溪 經書釋義의 音注에 관하여」, 『震檀學報』70, 진단학회, 1990.
- _____, 「퇴계와 다산」, 『퇴계학과 한국문화』,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3.
- 안병걸, 「동암 유장원의 경학사상」, 『퇴계학』창간호,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9.
- 이동환, 「다산사상에서의 상제도입경로에 대한 서설적 고찰」,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창작과 비평사, 1990.
- 이영호, 「『論語集注』의 成書過程을 통해 본 朱子 經學의 特徵」, 『한문학보』9집, 우리한문학회, 2003.
- _____, 「『論語集註』의 註釋方式과 그 經學史的 繼承樣相」, 『東洋學』제3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 이영훈, 「茶山 經世論의 經學的 基礎」, 『다산학』창간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0.
- 이우성, 「韓國 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3.
- 이윤희·김중석, 「한국문집총간 퇴계선생관련자료」, 『퇴계학보』112, 113.
- 이재석, 「『四書章句集注』音注의 訓詁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5.
- 이충구, 「經書諺解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0.
- 정요일, 「語助辭 ‘之’자를 目的語로서의 代名詞로 볼 수 없는 理由」, 『漢文教育研究』1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 조병한, 「清代의 思想」, 『講座中國史』IV, 지식산업사, 1989.
- 최석기, 「星湖 李瀼의 窮經姿勢」, 『韓中日 三國의 經學發展의 意味와 性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논문발표집, 1995.
- 황위주, 「서울 京畿地域의 退溪門人과 그 性格」, 『退溪學과 韓國文化』제33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3.
- 林慶彰, 『明代考據學研究』, 學生書局, 民國75年.
- 劉若愚 著·李章佑 譯, 『中國의 文學理論』, 동화출판공사, 1984.
- 錢穆, 『朱子新學案』, 三民書局, 民國78年.
- 程樹德 撰, 『論語集釋』, 中華書局, 1990.
- 王力 主編·영남중어중문학회 編, 『中國語文學通論』(원제:古漢語通論), 중문출판사, 1991.
- 黃六平 著·홍순요 譯, 『漢文文法綱要』, 미리내, 1994.

周予同, 『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96.

陳來 著·안재호 譯, 『宋明性理學』, 예문서원, 1997.

諸橋轍次 著·林慶彰 譯, 『經學史』, 萬卷樓, 民國85년.

大槻信良, 『朱子四書集注註典據考』, 臺灣:學生書局, 民國 65년.

阿部吉雄 著, 김석근 譯, 『퇴계와 일본유학』(원제:李退溪 その 行動と思想), 전
통과 현대, 2001.

미조꾸지 유조 著·최진석 譯, 『개념과 시대로 읽는 중국사상강의』, 소나무, 2004.

Abstract

The Characteristic based 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of Interpre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of ToeGye and Its Aspect of Inheritance

Lee, Young-Ho

Many scholars in East Asian countries have written numerous annotations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since <the Analects of Confucius> is the scripture that wrote down the remarks of Confucius who is a founder of Confucianism. Among all those annotations, the most influential anno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is the <NoneoJipJu> written by Chu Hsi. Chu Hsi reflected the scholia and trend of focusing on contents in the context which are important methods for the studies of scripture interpretation. The Chu Hsi school in China after Chu Hsi, however, had tried to establish its identity during the philosophical dispute with the Wang Yangming school. The philosophical dispute with the Wang Yangming school made the Chu Hsi school to focus on not scholia but trend of focusing on contents in the context. The Chu Hsi school's attitude towards trend of focusing on contents in the context had been reflected o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Meanwhile, ToeGye in Choson used the Chu Hsi's anno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when he wrote <NoneoSukEui>. He was basically loyal to the way of focusing on the contents in the context. But sometimes he tried to make an effort to find ou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cripture. He also made an effort to scholia that translated the sentences of the scripture in Choson language

After ToeGye, YoungNam ToeGye school and KeunKi ToeGye school had written several annotations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that included different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under the influence of Chu Hsi and ToeGye. Lee, DukHong in YoungNam ToeGye school interpreted <the Analects of Confucius> with the accordance of his master's theory in his book, <NoneoJilEui>. In his book, <NoneoChanJuJeongBo>, Yoo, JangWon compiled the theories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of Chinese Chu

Hsi school. Yoo, KeonHyu collected the theories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of Korean Chu Hsi school in his book, <DongYuNoneoJipHaePyung>.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were based on finding out the contents in the context of the scripture.

Meanwhile, the master of KeunKi ToeGye school, Lee, Ik had a different view of the trend of finding out the contents in the context of the scripture from that of Chu Hsi although he highly evaluated Chu Hsi's spirit for finding out the contents in the context of the scripture. He developed a new way of finding out the contents in the context of the scripture - for instance, putting on the importance of reality and profit - in his anno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Chong, Yagyong who wrote <NoneoKoKeumJu>, that was a special anno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the history of anno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East Asian countries, excluded exegetical studies and showed his respect to the studies of Chu Hsi classics.

Having Difference from Chu Hsi's <NoneoJipJu> that focused on less practical issues, he, however, built on the interpretational system that pointed to practical usage of running the state in his <NoneoKoKeumJu>.

Chu Hsi's scholaristic outcome that combined scholia and the way of focusing on the contents in the context had been succeeded not in Chinese Chu Hsi school but in Choson Chu Hsi school. The ToeGye school made little difference with the Chinese Chu Hsi school in terms of putting on the importance on the way of focusing on contents in the context of the scriptures. YoungNam ToeGye school, however, was different from the Chinese Chu Hsi school in terms of studying the way of focusing on contents in the context of the scriptures in detail. KeunKi ToeGye school was different from Chinese Chu Hsi school in terms of developing new theory of seeing the way of finding out the contents in the contexts of the scriptures. That new theory corresponded to the historical situation in the late era of Choson dynasty.

Key Word

the Analects of Confucius, NoneoJipJu, Chu Hsi, ToeGye, ToeGye school